



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도참고자료					
배 포 일	2019. 7. 12. / (총 7매)		담당부서		감염병총괄과
과 장	이 동 한		전 화	ᇵ	043-719-7120
담 당 자	박 광 숙			043-719-7113	

# 수족구병 환자 증가 지속. 예방수칙 준수 재당부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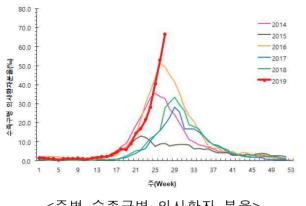
- ◇ 수족구병 발생 큰폭 증가(25주 40.5명 → 27주 66.7명)
- ◇ 수족구병이 의심(발열, 물집(입안, 손, 발))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
- ◇ 외출 후. 배변 후. 식사 전·후. 기저귀 교체 전·후 손씻기의 생활화
- □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최근 수족구병 환자발생이 큰 폭으로 지속 증가함에 따라, **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수족구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**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.
  - \* 수족구병: 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등 장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**발열 및** 입안의 물집과 궤양,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특히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며,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(침, 가래, 콧물, 수포의 진물 등) 또는 대변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됨.
  - 전국 1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, 수족구병 의사환자\*
    수는'19년 25주(6.16~6.22) 40.5명(외래환자 1,000명당), 26주(6.23~6.29) 52.9명,
    27주(6.30~7.6) 66.7명으로 지속 증가하였고, 국내 수족구병 의사환자 발생 중최고수준으로, 특히, 0−6세 발생(77.5명)이 높았다고 밝혔다.
    - \* 수족구병의사환자 발생분율(%): 수족구병의사환자수 / 전체 외래환자수×1,000
    - \*\* 수족구병 표본감시결과 확인: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탈 홈페이지(http://www.cdc.go.kr/npt)  $\rightarrow$  소식지  $\rightarrow$  감염병표본감시 주간소식지(매주 목요일 17시 이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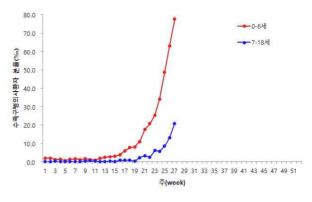












<주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>

<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>

- □ 수족구병은 예방백신이 없어 **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한** 최선의 방법은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.
  - 증상 발생 7~10일 이후 대부분 자연히 회복되나, 일부 환자에서는 고열. 구토. 마비증상 등이 나타나는 뇌막염. 뇌실조증. 뇌염 등 중추 신경계 합병증과 심근염, 신경원성 폐부종, 급성 이완성 마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.
  - **발열**, **입안의 물집**, **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** 등 수족구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.
- □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수족구병은 발생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를 반드시 준수하고.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이므로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. 유치워 등에서는 아이를 돌보기 전과 후에는 손씻기, 장난감과 같은 집기 청결히 관리하기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.
  - 아울러, 키즈카페, 문화센터, 수영장 등 **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** 소독 등 청결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.









### < 수족구병 예방 수칙 >

#### ◇ 올바른 손 씻기

- ◦흐르는 물에 비누나 세정제로 30초 이상 손씻기
- 외출 후, 배변 후, 식사 전·후, 기저귀 교체 전·후
- ◦특히 산모, 소아과나 신생아실 및 산후조리원, 유치원, 어린이집 종사자

#### ◇ 올바른 기침예절

◦ 옷소매 위쪽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

#### ◇ 철저한 환경관리

- ∘ 아이들의 장난감, 놀이기구, 집기 등을 소독하기<붙임 2 참조>
-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
- ◇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 받고, 등원 및 외출 자제하기

### <붙임> 1. 수족구병 발생 현황

- 2. 수족구병 발생 시 소독방법
- 3. 수족구병 질의응답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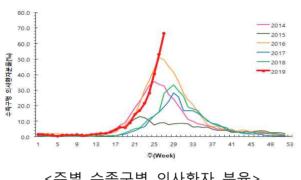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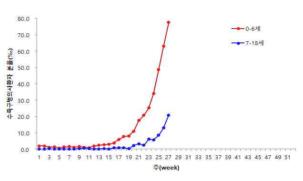


## 붙임

### 수족구병 발생 현황

- □ (임상 감시) 수족구병의사환자수 분율\*은 2019년 25주(6.16~22) 40.5명(외래 환자 1.000명당). **26주**(6.23~29) **52.9명**. **27주**(6.30~7.6) **66.7명**으로 연속증가
  - \* 수족구병의사환자 분율(천분율) = 수족구병의사환자 수/총 진료환자 수 x 1.000
  - 제27주 연령별 <del>수족구</del>병 의사화지수는 0-6세군에서 77.5명, 7-18세군 20.9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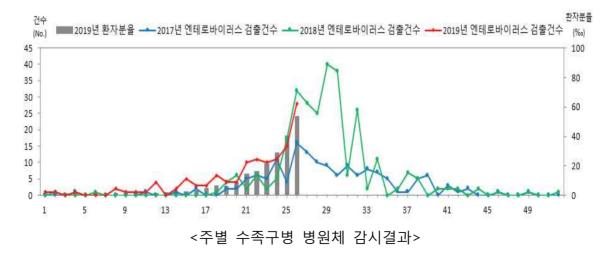




<주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>

<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>

- □ (실험실 감시) 2019년 26주(1.1~6.29)까지 수족구병 의심사례 시험 검사 의뢰 182건. 양성 검출 124건. 양성률 68.1%
  - 원인병원체: 엔테로바이러스 71(45건), 콕사키바이러스 A6(18건), 콕사키바이러스 A10(3건), 콕사키바이러스 A4(3건), 콕사키바이러스 A5(2건), 에코바이러스 21(2건), 에코바이러스 9(1건), 기타 병원체불명(50건)
    - \* 2018년 국내 유행주는 콕사키바이러스 A10(35.3%), 콕사키바이러스 A4(10.1%), 엔테로 바이러스 71(6.5%), 콕사키바이러스 B5(4.3%) 등의 순으로 확인











# 붙임 2

# 수족구병 발생 시 소독방법

- □ 환자가 만진 물건 등은 소독액(염소 0.5%(5,000ppm))을 뿌린 후 10분 후에 물로 씻어냄
- □ 소독시 주의사항
  - 장갑, 마스크, 앞치마를 착용 후 소독 실시
  - 소독을 할 때는 창문을 연 상태(외부 공기와 접촉된 상태)에서 실시하고 소독 후에도 충분히 환기 실시
  - 소독액은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말고 사용 후에는 소독 효과가 떨어지므로 보관하지 말고 버릴 것
  - 소독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
- □ 소독액 만드는 방법

### 염소 0.5% (5,000ppm)

① 빈 생수통 500ml에 종이컵1/3양의 염소계 표백제를 (4%기준) 붓습니다.



② 물을 더해 500ml를 채운 후 뚜껑을 닫아 잘 흔들어 섞습니다.











# 붙임 3

### 수족구병 질의응답

#### 1. 수족구병은 어떤 병인가요?

-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해 입 안, 손, 발에 물집성 발진이 생기는 감염병입니다.
- 엔테로바이러스 71 (EV71), 콕사키바이러스 A10, A16, A5, A6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.
- 주로 5세 이하의 영유아에서 발생합니다.
- 학생 및 성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증상은 경미합니다.

### 2.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수족구병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?

- ㅇ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수족구병의 증상은 발열, 인후통, 식욕부진 및 피로감(권태감) 등입니다.
- $\circ$  발열  $1\sim2$ 일 후에, 입 안의 볼 안쪽, 잇몸 및 혀에 작은 붉은 반점이 나타납니다.
  - 이 같은 반점은 수포 또는 궤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.
  - 또한, 손, 발 및 엉덩이에 피부 발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가끔 팔과 다리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발진에는 융기 또는 편평형 붉은 반점과 수포도 포함됩니다.
- 수족구병의 증상은 보통 경미하며 대개 7~10일 내에 저절로 없어지지만, 드물게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

(뇌막염, 뇌염 등 중추 신경계 합병증 외에 심근염, 신경원성 폐부종, 급성 이완성 마비 등)

○ 특히 면역체계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어린영아의 경우,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감염된 경우 뇌간 뇌수막염, 신경성 폐부종, 폐출혈, 쇼크 등 합병증의 발생이 더 높습니다.

### 3. 어떻게 감염이 되나요?

- 수족구병 환자 또는 감염된 사람의 대변 또는 분비물(침, 가래, 콧물, 수포의 진물 등)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러한 것에 오염된 물건(수건, 장난감, 집기 등) 등을 만지는 경우 전파됩니다.
- 발병 첫주에 가장 전염성이 크고, 잠복기는 약 3~7일입니다.

### 4. 수족구병이 의심되거나 진단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?

- 수족구병이 의심될 때, 특히 아이가 열이 높고 심하게 보채면서 잦은 구토를 하는 등 증상 발생시 최대한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.
- 진단받았을 때는 타인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자녀들이 수족구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, 학원 등에 보내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.









# 5.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?

- 현재까지 수족구병에 대해서는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.
-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감염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.
  - 수족구병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화장실 사용 후, 기저귀를 간 후 또는 코와 목의 분비물, 대변 또는 물집의 진물을 접촉한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르게 손을 씻어야 합니다.
- ㅇ 장난감과 물건의 표면은 먼저 비누와 물로 세척한 후 소독제로 닦아야 합니다.
-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침예절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수족구병에 걸린 아동은 열이 내리고 입의 물집이 나을 때까지 어린이집,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. 또한 증상이 나타난 어른의 경우도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직장에 출근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



[올바른 손씻기(30초 이상) 및 기침예절 지키기]



